

2021년 3월 5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여호와 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 103: 1-5, 22).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존귀한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제한과 어려움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원중 안미연 선교사 가족의 사역을 보고드리며 및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 19와 일본의 상황

2021년 2월 28일, 저희가 사는 교토는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1월 7일 도쿄 및 주변 수도권, 그리고 간사이의 인구 밀집 지역, 후쿠오카 등 주로 대도시가 있는 10개 광역 지역에 발표되었던 것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대부분에서는 해제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느슨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의 일일 확진자수(covid19japan.com, 2021년 3월 3일 현재)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구 이동이 많았던 연말연시가 지난 뒤에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3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43만 6천 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는 8천 1백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5배인 일본 전체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확진자 수도 사망자 수도 거의 다섯 배에 이릅니다.

일본 역시 코로나로 인해 가난한 서민들의 고통이 큼니다. 일자리를 잃고, 집세를 못 내고, 수입이 줄어 생활의 곤경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들 중에도 코로나의 긴 자숙생활 속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학생들, 알바를 그만 둔 학생들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난관을 이겨 나갈 만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현실이 더 힘겹게 느껴집니다.

2. 새로운 발걸음

지난 26호 기도편지에서 저희 가족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중 선교사는 기독교대학에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지 하는 기로에 서 있었고, 큰 아들 지용이는 대학 입시, 작은 아들 지민이는 고등학교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로 가족들의 진로가 많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모두 수험생활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었습니다. 지민이는 사이쿄(西京)고등학교라는 교토에서 좋은 평을 듣는 공립고등학교 시험에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지용이는 도쿄의 와세다(早稲田)대학 공학부에 합격을 했고, 교토(京都)대학 공학부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에 합격한다면 가족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교토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와세다대학으로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원중 선교사는 교토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km, 자동차로는 약 7시간 정도 걸리는 군마현(群馬県) 다카사키시(高崎市)에 있는 니시마학원단기대학(新島学園短期大学)에 종교주임 및 경력설계(キャリアデザイン)학과 준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학이며, 무슨 일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은 당분간

이원중 선교사가 가족을 떠나 사역지에서 홀로 생활하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자주 왕래하려고는 하지만, 워낙 먼 거리에 왕복 교통비용이 한 번에 약 40 만원 정도 드는 상황이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안미연 선교사가 교토에서 협력사역을 지속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교토남부교회에서 협력사역을 지속하는 것이었는데, 이제까지 교회를 담임하시던 허백기 목사님이 조만간 교회를 사임하시기로 하면서 저희들의 거취도 모호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토남부교회, 현재 담임목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을 가장 선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니지마학원단기대학

이원중 선교사가 오는 4 월에 부임하게 되는 니지마학원단기대학(이하 니지마대학이라 줄임)은 그 뿌리가 도시샤(同志社)대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도시샤대학의 창립자 니지마 조(新島襄)는 도쿄에서 태어났지만, 그 출신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의 군마현 안나카시(安中市)입니다. 니지마는 미국에서 돌아와서 교토에서 도시샤영학교를 시작하고 나서도 방학 때면 일본 각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영향과 전도를 받아서 1878 년에 회중교회 전통의 안나카교회(安中教会)가 세워집니다. 2 차대전 패전의 피해함 속에서 1947 년, 안나카교회의 지도자들과 청년들이 “니지마 선생의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적 학교”의 창립을 목적으로 안나카시에 ‘니지마학원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 정신에 충실한 교육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3년에 ‘니지마학원여자단기대학’을 설립했으며, 2004 년에는 그 대학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력설계학과와 커뮤니티어린이학과 등 두 개의 학과에 한 학년의 정원이 180 명, 단기대학이기에 전체 수업 과정은 2 년입니다. 전교생이 360 명 남짓, 전임교원 17 명의 작은 대학입니다.



대학의 모토는 에베소서 6:14-16 에 기초해서 ‘진리, 정의, 평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기독교 교육의 실천 방법으로 전교생에게 ‘기독교 입문’을 필수로 가르치고, 그 외에도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학과 이외에도 연중 다양한 기독교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배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매주 화요일에 드리는 채플입니다. 이 학교 역시 채플이 의무사항도 아니며 학점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채플 출석 인원이 많을 때는 전교생의 2/3, 적을 때도 1/3 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에 있다고 대학의 방침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그리고 지역 교회와의 연대 또한 중요시하는 대학입니다.



지난주에는 대학 학장님의 초청으로 부임 전에 인사를 드리고 대학의 소개를 받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대화 속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 역시 지방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이 그러하듯이 학생 모집과 학교의 생존에 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그 중심에서 내려 놓지 않고자 하는 신실한 학교라는 것이 저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의 교육과 실천을 저같은 외국인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개방성을 겸비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원중 선교사는 이 학교에서 ‘기독교입문’, ‘니지마 조’, ‘동아시아의 문화와 기독교’, ‘평화학’, ‘자원봉사 활동’ 등을 가르치고, 종교주임으로서 학교 전체의 채플 및 기독교 행사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 그동안 휴지기 상태에 있었던 ‘니지마문화연구소’라는 학내 연구소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다카사키시에 있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시작하는 사역에 너무 많은 부담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부디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재일대한기독교회 및 일본선교사회

지난 기도편지에도 소개해 드렸던 재일대한기독교회(KCCJ) 소속의 여러 교회 및 총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노회에 해당하는 조직을 이곳에서는 지방회라고 부르는데 각 교회, 지방회 마다 예배 출석인원의 감소, 활동의 중지 및 축소, 재정의 긴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문제 이외에도 일본 사회 및 일본내 재일동포 사회의 인구 구성 등의 변화, 차세대 리더십의 부재, 교회내 갈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주 사역지를 기독교대학으로 옮기기는 하지만, 꾸준히 함께 기도하며 일본 선교의 동역자로 섬기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선교사회 소속의 본교단 소속 선교사들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약해진 선교사, 재정이 곤궁해진 선교사들, 섬기는 교회의 어려움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본 선교를 위해 주님의 종들을 보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일본그리스도교회와 협력해서 복음으로 화해와 평화 운동을 위한 주의 종을 후쿠오카에 보내주셨고, 2020년 초에는 오키나와 선교에 헌신된 동역자를, 올해 1월에도 오랜 시간 잘 준비된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지난 2월 8일, 새로 부임한 선교사의 인사를 겸하여 ZOOM으로 신년모임을 가졌습니다(위 사진).

이 자리에서 이원중 선교사의 제안으로 2022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은 본교단이 일본 선교를 시작한지 5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자료집도 만들고 특별한 선교대회를 내년에는 개최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 백년의 선교를 정리하고 새시대에 부응하는 선교의 초석이 놓여 지기를 기도합니다.

5. 첫 사역을 마무리하며

가족들은 당분간 교토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역과 연구의 무대를 기본적으로 교토에서 군마로 옮기게 됩니다. 2008년 학생으로 시작했던 도시사와의 관계도 교직원이 아닌 졸업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 그 안의 니지마 조, 도시사대학 등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쳤던 경험이

새로운 사역과 연결되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도시사에배당과 니지마의 매화

도시사에 있으면서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학문적으로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했던 신학생 혹은 일반 학생들을 통해서 일본의 기독교와 종교 상황을 실제로 체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했던 학생들이 미래의 일본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기도하며 성심성의껏 강단에 서 왔습니다.



도시사대학 뿐만 아니라 간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회 및 관련된 사역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이성서신학원의 수업, 일본기독교단의 여러 교회에도 작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을 옮김에 따라 정말로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아무 것도 모른 채로 무작정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 저희 가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고,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모가와(압천, 鴨川)의 석양

시간이 지날 수로 해야 할 일, 과제가 더 보이기에 몸과 마음은 분주해지고 있지만 감사 또한 넘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역, 새로운 관계 가운데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뵈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6. 기도 제목

- 1) 지난 1 년간의 기도제목이었던 가족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미정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 2) 이원중 선교사의 니지마학원단기대학 교수 및 연구 사역, 지역 교회와의 관계와 섬김, 안미연 선교사의 한글교육 및 협력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복된 생명과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 3) 장남 지용, 차남 지민이가 새로운 학교에서 몸과 마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 4) 코로나 19 로 인해서 교세의 위기에 처한 일본의 각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며,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역동적으로 증거하며,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계속해서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